

영암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2025 / No.141



아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배운다

도로시 L 놀테

만약 어린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수치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운다

관대 속에서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받아들임과 우정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02	성시	아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배운다 · 도로시 L 놀테
04	말씀의 샘물	‘땅 끝까지 이르러’
06	해외선교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보고 · 편집부
08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 장지철 장로
10		레바논에서 온 편지(20250525) · 장영배 · 감사랑 선교사
12		청년부 일본 선교훈련 소개글 · 오채훈 팀장
14		‘용서’, ‘기도’ 그리고 ‘사랑’ · 김시온 청년
16		이웃이 되는 것 · 남윤수 청년
18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 김해찬 청년
20	국내선교	영암전도대 활동을 하며 · 박은아 성도
22		뽕튀기는 복음을 신고 · 이현철 안수집사
26		세 · 감 · 자 되어 · 이경숙 권사
28	교육부 여름사역	기독교 캠프코리아 · 초등2부 김범준
29		겨울수련회 소감문 · 중등부 유시온
30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 고등부 박민준
32	소그룹 / 리더교육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진희 집사
34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 홍미정 집사
35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 권정연 성도
36	소그룹 / 일대일 제자양육	일대일 제자양육 소감문 · 이신혜 성도
37		일대일 제자양육 · 임윤식 집사
38		일대일 제자양육 · 조윤진 성도
39	교회활동 / 행사	참 좋은 영암학당 · 문영숙 집사
40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성기 장로
42		교회 구제사업 소개 · 편집부
44		우신소석 장학회 통합 원년에 즈음하여... · 조규완 장로
46		늘 푸른 대학을 섬기며... · 이성달 안수집사
48	교회 내 섬김모임	재정부를 소개합니다-재정부 · 편집부
50		보이는 것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방송부 · 김정래 안수집사
51		내 영혼이 은총 입어-조가대 · 이선희 권사
52		영암의 자랑 수요맛집-수요자매회 · 이홍숙 권사
53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섬기는 삶-운구팀 · 김동호 안수집사
54	문화칼럼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 · 강진구 안수집사
56	신임교역자 소개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 조명훈 교육전도사
57	새가족 소개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58	영암소식	



‘땅 끝까지 이르러’



유상진 담임목사

우리 교회가 주파송교회로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참빛교회 박윤길 박은숙선교사님은 현지 목회자를 재교육하여 현지 교회(인도네시아 GMII 교단)를 든든히 세우는 모범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를 계획했던 것은 2020년 봄이었습니다. 순조롭게 준비되던 일정은 코로나로 인해 무기한이 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5년5월11~19일까지 7박9일동안 칼리만탄섬 서쪽에 있는 신평 지역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생각보다 큰 나라입니다. 적도 부근의 17,000 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동과 서로 뻗은 섬 나라입니다. 지도를 남과 북으로 돌려 놓으면 인천공항에 닿을만큼 땅 덩어리가 크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를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동과 서의 시차는 3시간이고, 인구는 2억8천만명으로 세계 4위이며, GDP는 16위입니다. 종교는 무슬림이 87%, 개신교 8%, 가톨릭 2%, 힌두교 3%로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이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단기선교가 가능했습니다.

영암교회 단기선교팀이 방문하게된 칼리만탄섬은 우리에게서 보르네오섬으로 알려진 곳으로, 한반도의 2.7배, 대한민국의 5배 크기의 섬입니다. 선교팀은 서쪽 폰티아낙에서 320km 떨어진 신평지역의 미시아 신학교를 본부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버스로 8시간 소요되리라 예상했지만 편도 1차선의 구불구불한 길로 11시간을 걸려서야 사역지에 도착하

게 되었습니다. 칼리만탄섬은 크기에 비해 인구가 1천7백만명 밖에 되지 않을 만큼 낙후된 섬입니다. 종교 분포로 보면 해안가의 도시는 무슬림이 강세인 반면, 내륙지역인 신평은 개신교가 무려 70%일 만큼 부흥하고 있는 곳입니다.

미시아 신학교에서는 약 90여명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3일간 오전 오후 6회에 걸쳐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더위속에도 세미나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목회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해 신평에 세워진 교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시아 신학교(STT Misia/GMII 교단 소속/인도네시아에서 2번째로 큰 교단)는 나라에 정식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5년제 신학교로 현재 재학생은 27명인데, 미시아 신학교 건물은 학장인 마린탄(Marintan) 박사의 시아버지가 3.5헥타의 땅과 건물을 학교 재단에 기증하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기억에 남는 분은 알럼니아 홀루(Alumnia Hulu)목사님입니다. PPN(느헤미야목회훈련원) 3기 출신으로 2011년도에 훈련을 받고 신평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 주변에 도박(투게/불법이지만 음성적으로 시행됨), 술, 주술(미신)이 사라지기를 간절한 눈물로 호소하여 함께 부둥켜안고 뜨겁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3일간 3곳 현지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첫째 날 엘림교회는 열악한 교회였는데 1년전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아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야간집회였음에도 교회 내부는 찜질방처럼 더웠는데 더욱 놀란 것은 찬양하는 모습과 어린이들까지

단정한 옷을 입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열기에 선교팀원들이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둘째 날 갈릴래아 교회는 한국의 60~70년대 교회 건물처럼 넓고 허술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은 마치 초대교회의 열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나자렛교회는 신 땅에서 경험한 현대식 교회였습니다. 디딤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이 녹아진 교회인데, 주말에는 청소년 예배를 통해 악기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 80여명이 모이고 있었고, 성도들은 50명 정도가 출석하며 공무원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나자렛교회는 인근에 제로라(Jerora) 교회를 개척하여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밤 중에 잠시 건축현장을 방문해서 통성 기도를 했는데, 교회가 자립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으로 확장하는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미시아 신학교 1층 함석지붕 건물에서는 치과 진료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3일동안 장지우, 장지철 장로님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74명이었고 그 중 7명은 재진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평생 처음 치과 진료를 받은 분들도 계셨기에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찜통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편한 자세로 꼼꼼하게 진료를 하신 두 분 장로님과 간호팀, 접수팀, 의료기구소독팀, 기계정비 등 뜨거운 열풍 속 각자의 섬김을 다하신 선교팀원들의 미소속에 섬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팀의 꽃인 어린이 사역은 3일간 엘림, 갈릴래아, 나자렛교회에서 연인원 200 여명이 모인 큰 잔치 자리였습니다. 어린이 사역팀원들은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 달궈진 예배당에서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함께하며 성육신의 자세로 섬기시느라 탈진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선교팀원들 모습 속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금요일 신 땅에서 폰티아낙으로 이동한 뒤 비행기 연착으로 6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하여 밤늦게 자카르

타로 복귀했는데, 장염에 걸린 분들이 많아 고생을 하셨습니다.

토요일에는 참빛교회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느헤미야목회훈련원(PPN)을 방문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1시간 정도 외곽에 있는 느헤미야목회훈련원은 현지 GMII 교단과 협력하여 현지 목회자 재교육을 위해 설립한 곳으로 1년여간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현재까지 21기가 수료했고, 130여 명의 목회자를 배출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빛교회는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들의 수원지가 되고 있는데, 교회 벽면의 현지 교회가 표시된 지도를 보면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참빛교회 1,2부 예배 설교를 맡았고, 2부 예배 시간에는 단기선교팀원들이 ‘엘샤다이’ 현지어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인도네시아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였는데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번 단기선교의 특징은 참빛교회 박윤길 박은숙선교사님을 포함 7분이 함께 동행하며 연합 사역을 한 것입니다. 현지인들에게 인도네시아어를 통역해주시며 치과의료장비 공항 검색대 통과를 비롯, 치과 진료시 통역, 목회자세미나 및 저녁집회 통역, 어린이 사역과 설교 등 많은 부분을 함께하며 진정한 연합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기도과 후원 덕분에 은혜의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단기선교에 꼭 참여해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드리마카시. 감사합니다! Y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보고

영암교회는 지난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7박 9일간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섬 신탕지역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유상진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최에스겔 목사님, 장지우 원로장로님, 길학철 장로님, 장지철 장로님, 이천순 협동은퇴안수집사님, 서경희 은퇴권사님, 김경순 은퇴권사님, 이호길 안수집사님, 이현철 안수집사님, 박영 안수집사님, 박성열 안수집사님, 윤명숙 권사님, 이덕순 권사님, 안정원 권사님, 김정례 권사님, 윤옥수 권사님, 허유미 집사님, 서동근 집사님, 이신혜 성도님 등 모두 20분의 영암의 식구들이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 분들과 함께 현지목회자 세미나와 의료사역, 어린이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무더운 기후와 낯설은 환경을 무릅쓰고 알차게 진행되었던 선교사역의 결과로 인도네시아의 신탕지역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를 기원하며 선교의 자취를 일정과 사진으로 남깁니다.



5월 11일(주일) 2부 예배 선교팀 파송식 및 선교지로 출발

5월 12일(월) 자카르타 → 폰티아낙 → 신탕(사역지) 이동



5월 13일(화) 사역 준비, 현지 목회자 세미나, 치과진료사역, 어린이사역 · 저녁집회(엘림교회)

5월 14일(수) 현지 목회자 세미나, 치과진료사역, 어린이사역 · 저녁집회(갈릴래아교회)



5월 15일(목) 현지 목회자 세미나, 치과진료사역, 어린이사역 · 저녁집회(나사렛교회)



5월 16일(금) 신평 → 폰티아낙 → 자카르타 이동

5월 17일(토) 느헤미야목회훈련원 목회자 세미나 및 방문, 자카르타 비전트립



5월 18일(주일) 참빛교회 주일예배 및 인도네시아부 예배 참석, 한국으로 이동

5월 19일(월) 새벽 도착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장지철 장로

지난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 오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되 돌아보며,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5월 11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인천에서 자카르타까지 7시간, 이어서 국내선으로 폰티아낙까지 1시간 반, 그리고 신팡까지 버스로 8시간을 이동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사고 없이 다녀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빛진 자임을 깨닫다.

140년 전,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같이 먼 나라 먼 길을 기차와 배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예수님의 복음과 의술을 전해 준 수많은 선교사들을 생각하니, 그곳 인도네시아로 갔었던 기나 긴 시간들이 그렇게 긴 여정이 아니었고, 오히려 저희들이 '복음의 빛진 자'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참빛교회 담임 목사이자 느헤미야 목회 훈련원장으로 현직인 목회자 훈련에 힘쓰고 계신 박윤길 선교사님은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들의 삶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탕자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서 시작된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선교적 삶을 살라. 이에 대한 대가는 고난과 수고 희생이다. 고난은

선교의 수단이고, 그 목적은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박윤길 선교사님의 설교노트를 다시 꺼내어 이번 선교여행 가운데 주셨던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복기해 보았습니다.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시간

짧은 사역 기간이었지만, 유상진 목사님과 최에스겔 목사님께서도 현지 목회자들에게 매일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선포기 하나에 의존하며 적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현지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을 선물했던 해피 파티,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치과 진료를 받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현지 사역자와 어린이들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전에 에티오피아와 네팔에서 치과 의료 봉사를 했을 때는 밀려드는 환자들로 인해 발치 외에는 다른 치료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윤길 선교사님께서 50여 명의 환자를 미리 예약해 주셔서 한 환자당 좀 더 세심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현지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주요 환자였는데, 70여 명의 환자 중 단 한 명만이 충치 치료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과거 단기 선교팀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단기적인 의료 행위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치 치료 흔적과 함께 전해졌을 ‘예수 복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오래전 낙후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은 의료와 복음, 사랑을 흘려보내는 과정이었음을 생각하니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빛진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진료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박윤길 선교사님께서 인도하신 작은 마을에서는 15명 이내의 주민

들이 직접 규모 있는 건물을 공사하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나 가는 중에 꼭 들려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들의 간절함과 열정을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와 헌신을 배우다

늦은 시간 현지 교회에 도착하여 드린 예배는 마치 어린 시절 바닥에 앉아 부흥 사경회에 참석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열악하고 낙후된 환경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현지 목사님과 찬양 사역자들의 모습을 통해 예배의 참 모습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지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인도네시아 현지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며 마치 저희에게 처음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시는 듯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저의 삶을 돌아보며, 풍요로워지고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며 외형적으로 커졌지만,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 절박함이 있는가 반문해 보며,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보았습니다.

첫날 서경희 권사님께서 발가락을 빼는 사고가 있었지만, 괜찮다고 웃으시며 묵묵히 맡은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발뻘가 부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권사님은 팀 내에서 공동체를 위한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끝까지 참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3일 내내 치과 진료 사역

을 쉬지 않고 감당하신 장지우 장로님과 서경희 권사님은 저희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은퇴 이후 누릴 권리를 일부 포기한 덕분에,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두 분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며

돌이켜보니 참 짧은 기간이었고, 인도네시아 땅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영암교회 팀 20명과 참빛교회 7명의 사역들이 헛되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귀한 열매를 맺듯이, 저희의 사역은 작고 부족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결실이 열 배, 백 배로 이루어질 줄 믿고, 늘 기억하며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 날 참빛 교회 예배를 마치고, 문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무나야 목사님은 아쉬움과 감사의 눈물로 저희 팀들을 배웅하셨습니다.

통역을 담당하셨던 원 선교사님께 "정말 통역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칭찬을 드렸더니 곧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응답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렇구나. 우리 단기 선교 여정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Y**

레바논에서 온 편지(20250525)

레바논에서 성도님들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늘 마음 모아주시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장영배 · 김사랑 선교사

했는데 한 해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자 없는 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 팔아가며 알아보는 것도, 외국인에게 바가지 씌우지 않는 마음씨 좋은 현지인을 만나는 것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의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만한 거처를 주신

달라진 풍경, 그리고 일상

4월과 5월은 레바논 여기저기 화려한 색감으로 물드는 시기입니다. 얼마 전에 베이루트에서 한 시간가량 떨어진 슈우프라는 산간마을의 현지 친구 집에서 1박을 하고 왔는데요, 산등성이마다 노란 꽃이 예쁘게 피었더랬지요. 알고 보니 로템나무의 일종이라고 하더군요. 로템나무가 지천으로 널려있어 흡사 우리나라의 개나리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나무가 그리 크지도, 꽃이 화려하지도 않지만, 짙은 꽃향기로 갇가지 풀벌레를 부르는 로템 나무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랍어 공부와 함께 클리닉 진료, 난민센터

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센터 자매들을 위한 제자 훈련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센터장과 저희 부부를 비롯한 리더그룹이 먼저 한 과씩 공부를 한 뒤, 현지 리더인 도아와 떼아가 5명의 제자 훈련 그룹 자매들과 같은 내용으로 성경 공부를 이끌어갑니다. 생각보다 시리안 자매들의 질문이 매우 많고 깊습니다. 얼마 전에는 웃음 많고 활발한 멤버 제나가 A4용지 한가득 질문을 적어 온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동안 이들에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지진 했을까 싶더군요. 부모님의 요구에, 이른 결혼 후엔 남편의 말에, 그리고 아이들의 소리에 맞춰 살아오기 바빴을 테니까요. 그렇게 질문을 쏟아내는 자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먹먹한 한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아직 이 자매들은 무슬림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구도자입니다. 이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 말씀이 이들의 마음



로템나무 & 슈우프 친구들



여성 사역과 이동 진료, 한글학교, 합창 활동 등 여러 사역들을 이어가며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월셋집 계약이 끝나가던 지난 4월, 감사하게도 집세를 동결하여 재계약을 했어요. 전쟁 이후 집세가 많이 올라 지난해에 이어서 또 이사를 해야 하나, 내심 걱정

제자 훈련 모임 & 이동 진료



을 변화시키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기 모습에도 다시금 눈 뜨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성경 공부 전체 과정을 조율하고 리더그룹을 인도하는 사랑 선교사에게도 지혜와 성령 부어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하딜 이야기

지난 4월, 센터에서 일 년 만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자매가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세례식을 준비하는 센터는 아침 일찍부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9살인 하딜은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이후 떨어져 지냈던 엄마와 살고 싶어 3년 전 어렵게 시리아를 떠나왔습니다. 엄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센터에서 매주 말씀을 듣고 물심양면으로 보살핌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과정을 생각하니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딜은 기쁘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물세례를 받은 뒤 축하를 건네는 센터 식구들과 환한 미소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포옹을 나눴습니다.



세례식

그리고 한 달 뒤,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딜은 비자 없이 레바논에 들어와 간호학교에서 공부하던 중이었는데, 최근 레바논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비자 없이 체류 중인 시리아 학생들이 졸업 시험을 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매우 가부장적인 시리아 사회에서 아버지나 남자 어른의 동의가 없으면 비자를 만들 수 없다는 법 조항 때문에 비자

발급을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엄마를 찾아 레바논으로 건너온 하딜에게 아버지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삼촌도 그런 아버지의 눈치만 보며 도와주기를 꺼렸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비자를 받을 방법도,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딜 뿐만 아니라 이런 처지에 놓여있는 시리아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비자가 없는 경우도 많고, 있더라도 레바논 거주증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당장 시리아로 돌아간다고 해도 사회 기반 시설이 상당히 무너진 상황인 만큼 다시 학업을 이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철저히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부모의 반대로 배우고 싶어도 기회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이들 곁에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출구가 열리기를, 주님이 이들의 삶에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하딜과 같은 처지의 시리아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하딜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주인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친구들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동네에서, 교회에서, 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수록, 가까워질수록 ‘난민’ 또는 ‘그들’이란 명칭은 어느새 사라지고 살아온 인생의 맥락을 가진 여러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삶과 일상에 한 걸음 들어가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더 배웁니다. 이런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Y**

청년부 일본 선교훈련 소개글



오채훈 팀장

1. 선교에 참여하면서

먼저, 귀한 해외선교일정을 허락하시고, 상황과 여건 재정과 모든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처음 목사님을 통해 일본선교훈련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년들 모두가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청년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일정이라는 점도 처음이었지만 일정과 상황, 재정 등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의 재정을 예비해 주셨고, 청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 일정 소개

저희는 2월3일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이상열 선교사님과 만남을 시작으로 모든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정의 주요한 사역은 히메지비전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함께 주변 사역지들을 돌아보고, 가능한 거리와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땅의 문화와 현실을 온 몸으로 느끼고 배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히메지를 비롯한 그 지역의 역사와 선교에 대해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며 믿음의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교토로 이동하여 정지용 운동주 시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정신으로 세워진 동지사대학에 방문하여 이원중 선교사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귀무덤, 도요쿠니 신사, 겐나의 가톨릭 순교지 등을 방문하며 일본의 문화와 종교를 중심으로 일본선교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 1%에 머물러 있는 일본의 복음화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곳

에서 민족의 아픈 역사를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안에 참된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찬양한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2월 8일 토요일 오사가 간사이공항을 통해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3. 의미 및 기도제목

이번 여정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첫 모임에서부터 지금까지 매주 온라인 기도회와 교제의 시간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각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지 알지 못했지만, 분명 모든 여정을 통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Y**



‘용서’, ‘기도’ 그리고 ‘사랑’



김시은 청년

나의 첫 선교는 작년에 영암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한 유럽 선교였다. 여러 나라를 짧은 기간 안에 돌아봐야 했기에 시간 대부분을 분주하게 이동하며 보내 버렸지만, 그 시간을 통해 선교에 대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선교란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되어가는 과정’이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선교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일본 선교훈련을 신청하면서 했던 다짐을 기억하며 선교의 본질을 되새기고자 했다.

일본은 내게 선교지로서는 꽤 낯선 나라였다. 혹여나 선교라는 사명을 잊고 5박 6일을 여행처럼 흘러보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내가 정의한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교를 신청할 당시의 포부와는 달리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선교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 매주 주일 청년부 예배 후 선교팀과 모여 다짐과 기대,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평일 저녁에 틈틈이 Zoom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일본으로 출발하는 당일 아침까지도 나의 머릿속은 선교 외의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이런 상태로 과연 선교다운 선교를 할 수 있는지 이번 선교훈련을 통해 나에게 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신 건지 여쭙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복도 끝에서 멀리 웅기종기 앉아있는 동역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무엇보다도 선교에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이 이번 선교를 통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어쩌면 이번 선교의 대상은 일본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함께한 동역자들과 나 자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격적인 선교 일정이 시작되었다. 뜻밖의 강추위 속에서 뻘뻘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틈틈이 꾸역꾸역 외은 일본어 찬양을 히메지비전교회와 이름 모를 거리에서 부를 때에도, 동지사대학교 예배당에서 일본의 개신교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에도, 팀별 자유시간을 가질 때에도 모든

순간마다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선교를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하자면 ‘용서’와 ‘기도’, ‘사랑’이다.

첫째로 ‘용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가장 큰 은혜였다. 내가 가진 편견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 깊이 용서와 화해, 화합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다. 둘째로 ‘기도’는 선교 기간 내내 큰 힘이 되어주었다. 노방 찬양과 작은 나눔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는 못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께서 일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선교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또한, 하나님과의 소통은 기도가 일상이 될 때 가능한 것이며 나 자신뿐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이번 선교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감정이었다. 함께한 동역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속에서 그리고 선교팀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일본 선교훈련은 선교란 ‘누군가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나의 정의를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실천한 값진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Y**



이웃이 되는 것



남윤수 청년

선교의 사전적 의미는 ‘신앙을 선전하여 널리 전도하는 일’입니다. 저 또한 이번 일본 선교 훈련을 목전에 두고, 어떻게 하면 일본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일본 대학에 다니며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기에, 선교팀과 노방 찬양을 준비하면서 혹여 노방 찬양이 그들에게 민폐(메이와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본 선교 훈련을 다녀오며, 선교에 있어서 기독교를 알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본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일본에 도착한 날까지도 결실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현지 문화탐방을 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게 맞나?’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히메지 비전교회에서의 예배를 통해 선교에 있어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 히메지 비전교회의 성도님들과 기도제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와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된 건, 일본에서 수십년간 거주하신 한국인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기도제목은 ‘일본인 남편이 교회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기도 제목에서 일본에서 생활하며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던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권사님의 기도제목에 저 본인을 투영함과 동시에, 일본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웃으로 인식하고 나니, ‘어떻게 하면 일본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이웃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며 신앙의 전파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28:18~20〉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위 말씀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분부하심’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명령받은 선교를 행함에 있어,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랑을 전해야 하겠죠. 그렇기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이웃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땅에서 그들과 같은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청년부 일본 선교 훈련은 일본에 사는 이들과 이웃이 되어가는 좋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있어서 큰 씨앗이 될 것입니다. Y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김해찬 청년

이번 선교는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첫번째로 아는 것 하나 없는 타지에서 하나님만 믿고 선교를 떠나신 선교사 분들의 마음가짐을 생각해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첫날과 둘째날은 자유 탐방시간을 길게 가져갔고 그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는 지하철을 실수로 무임승차해서 역무원과 면담하고 실수로 비싼 음식을 주문해서 주문도 취소하고 폰이 꺼져서 길을 잃고 눈에 보이는 가게에 들어가 길을 묻는 등 언어가 통해도 힘든 경험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정보가 활성화된 시대에 살면서도 결국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힘들음을 느끼는데 그때 첫 선교를 오신 선교사 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 안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무서웠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런 자유탐방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력하였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저희는 번역기가 있지만 그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보기 쉬운 모바일 지도가 있지만 그때는 없었습니다. 어딜가서 어딜보든 정말 무력했을 것입니다. 또 옛날이니 만큼 타지인에 대한 배척과 텃새 그리고 문화차이로 인해 많은 거부를 당했으며, 일본인 그 누구도 그의 노력을 알아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무 결실을 맺을 수 없을지 모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선교사 분들을 괴롭혔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마음을 느껴보니 저희가 가는 히메지 비전교

회 그리고 교토 시내를 돌아다니며 본 곳곳에 있는 십자가 달린 교회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고 그냥 존재할 수 있었던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 당연하게 영암교회를 다니는게 과거 한국에 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였던 한 선교사분의 덕이라는 것을 느꼈고 이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히메지 성과 동지사 대학에 가서 윤동주, 정지용의 시비를 보며 더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지사 대학에서 배우길 일본은 종교를 종교로 생각하지 않고 삶에 녹아있는 문화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설날에 온 가족이 한집에 모여 세배를 하고 윷놀이를 하는게 당연하듯 일본도 새해를 맞아 신사에게 새해의 안녕을 비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일본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본인 나라의 문화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또한 일본 종교에서 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히메지성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히메지성은 정말 커다란 성이며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야지만 꼭대기 층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높은 성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살았던 방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성 꼭대기에는 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 높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위에 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신의 힘이 센 종교가 일본의 문화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이 종교가 문화 안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에서 선교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 분들이 느꼈을 무력감과 압박감 고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동지사 대학에서 윤동주 시인과 정지용 시인의

시비를 보게 되었고 처했던 상황과 독립운동가의 고충 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독립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무로 돌아갈 수도 있으며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조차 알려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막막한 가시밭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걸어가야만 했죠 이와 같은 부분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인생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게 아니며 누리고 살아감에 감사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는 히메지 비전교회에 수요예배에 참석해서 일본어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어눌한 발음으로 머리를 쥐어짜내며 불렀습니다.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어설픈서 장난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죠. 하지만 걱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두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피곤할수도 있고 앞에선게 부끄러울 수 있지만 웃으면서 큰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또 히메지 비전교회 분들도 웃으며 같이 찬양을 따라불러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긴장이 풀리며 웃으며 부를 수 있었고 찬양 가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를 때는 이곳에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 때문에, 꽃들도 찬양할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구나를 느껴 감동과 벅차오름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는 노방 찬양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벅차오름 감동에 눈물이 났죠. 또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이 모두가 듣고 눈물 흘릴 것 이다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안에 누군가의 마음안 씨앗이 될 것이니 우리는 찬양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전혀 긴장이 되지 않았고 다같이 웃으면서 부

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정말 힘든 일정으로 가득했습니다. 5일동안 오사가 히메지 교토 고베 등을 전부 돌아다녔죠.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변수가 함께 했고 누군가 표를 잃어버리고 기차 시간이 밀리고 일정을 실시간으로 수정하곤 했습니다. 이런 변수와 힘든일정 가운데 모두가 지치고 힘들었겠지만 그 누구도 힘들단 말 하나 없었습니다. 웃으며 팬찮냐고 서로를 챙겼습니다. 목사님은 가득한 변수 가운데 화가 나기도 지치기도 하셨겠지만 늘 앞에서 저희에게 웃어 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불만이 나오면 화가 나고 억울하실텐데 전혀 그러시지 않고 오히려 저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에 고린도전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딱 목사님이 떠오르는 구절이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또한 만약 지쳐 힘들어 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 누구도 방관하지 않고 힘든 이를 도왔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지쳤지만 모두가 그랬죠. 저 또한 그러고 있었고요. 이와 같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를 보며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었구나를 느꼈습니다.

선교를 시작할때는 아무래도 일본을 가는지라 설레는 마음과 여행처럼 즐기고 싶다는 마음을 없애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어딜가든 이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온 선교임을 잊지 말자 라고 다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많이 보고 많이 배우며 많은 것을 느낀 알찬 선교였습니다. 이번 선교로 배운 선교사분들의 희생과 노력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의 그 감동과 느낌 무엇하나 잊지 않고 더 나은 청년 김해찬이 되겠습니다. Y

영암전도대 활동을 하며



박은아 성도

저에게 전도대의 액션은 짧고 굵습니다. “영암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바빠 걷는 행인을 놓칠 세라 재빠르게 전도지와 전도물품을 손에 쥐여드리기입니다.

어느덧 내가 영암전도대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세 번째 학기입니다. 올가을 성북천에 가을 단풍이 물들 준비를 하니 어김없이 카톡으로 영암전도 가을학기 시작을 알리는 홍정화 집사님의 공지 글이 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이에 대한 반가움의 인사 왕래가 문자로 오고 갑니다. 그동안 무탈하게 지내신 가운데 다리수술로, 건강문제로 이번 학기에 함께 자리하지 못하는 분의 마음을 헤아려봅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부디 건강 회복하시길 기도드리며 뵙지 못한 한 분 한 분의 안부를 짐작하여 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반이 되기 전 제가 혈레벌떡 1층 모임실에 들어서면 이미 자리하신 여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올 봄에 새로 오신 백선실 집사님의 피아노 반주와 함께 아름다운 찬송가로 모임실을 성령 충만으로 메우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자라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거두는 것은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박재혁 목사님의 말씀으로 신입 전도자팀, 중보기도팀과 노방전도팀으로 지녀야 할 기도제목과 성경말씀으로 이곳에 자리하기 전 저의 게으른 꾀병으로 결석을 살짝 고민했던 못된 생각을 부끄럽게 꼬

집으며 자칭 부지럼 중독으로 심신이 지친 가운데 머문 이 곳에서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한주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늘 말의 힘을 강조하시며 “나는 온유하며, 화평하며, 축복받은 자입니다”를 소리 내며 옆자리의 성도님의 손을 잡아 온기를 나누고, 양손으로 스스로를 껴안으며 다시 외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제 자신을 사랑하며 지친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얻습니다. 아멘.

이후, 영암전도대의 김희영 팀장님의 광고 말씀과 매번 책상에 놓인 뜨끈한 떡은 전도활동 후 간식으로 가방안에 챙겨 둡니다. 중보기도팀은 기도실로, 노방전도팀은 2인 1조가 되어 예코백 가득 채운 전도지와 전도물품을 어깨에 메고 성북천으로 보문역으로, 신설동역으로, 안암역으로 향합니다. 낯선 행인에게 다가 “선생님, 영암교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로 말을 건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시기도, 어색하게 받아가시기도 합니다. 종종 제게 말을 건네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짙어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아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갇난 아이가 사망하면 천국 못 가는가?’ 등의 기습 질문은 저를 곤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조차 전도활동으로 얻는 감사입니다. 공부해 오겠습니다. 전도 파트너와 두런두런 믿음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어느새 저는 새내기 전도대원으로 두 번의 성북천 가을의 노란 은행나무들의 행렬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영암전도대가 아니었다면, 함께 마주 하며 말씀 나눌 기회가 없었을 텐데 쉼 없이 얼마 남지 않은 저에게 늘 젊은 성도라 부르시며 인생의 믿음 간증을 나누어 주시는 늘 소녀 같은 미소의 권사님들과 이야기 나눌

때 저도 깔깔 크게 웃어 봅니다. 젊다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듣기 좋습니다. 이처럼 생명 주신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안에서 편히 그리고 웃으며 살 수 있도록 영암전도대로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암전도대'를 위해 애쓰신 김대영 장로님과 보이는 곳곳에서 힘쓰시는 이현철 집사님은 청이(2)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전하는 전도지를 만지작거립니다.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감의 고급스러운 엽서 한 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초록색지에 '토닥토닥 오늘도 고생했어요'를 저에게 말해주며, 뒷면의 아름다운 시편과 건강한 교회로 소개되는 영암교회, 그리고 유튜브 채널로 연결되는 QR코드 정보까지 있으니 세련된 전도지의 센세이션이랄까요? 책갈피로 쓰기에 좋고, 냉장고문에 붙여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도 하며, 지인에게도 영암교회를 소개하기에도 딱 알맞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의 전도활동을 위해 선행학습이 있었습니다. 갓 스무 살 대학생시절 한창 용돈이 필요한 시절 아파트경비원 몰래 전단지 뭉치를 가슴팍에 숨기고 아파트 최고층으로 올라가 가가호호 뿌리며, 계단을 따라 1층까지 내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새 구두 생각에 천 여장의 전단지는 후들거리는 다리도 비 오듯 흐르는 땀도 건디게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손을 거쳐 전해지는 전도지가 겨사씨와 같이 곳곳에 뿌려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영암교회의 문턱을 쉬이 넘어 믿음의 사람들로 영혼구원까지 이르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 지켜보시기에 너무 좋으실테지요.

마지막으로 모두가 모두에게 두 손 벌려 환대해 주시는 오랜 영암전도대와 함께 한 화요일은 언제나 모두가 온유합니다. 화평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제가 느껴온 풍성하고 유쾌한 영암전도대의 에너지가 보다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기도드리며, 사심 가득한 영암전도의 글을 마칩니다.

아멘. Y



뽕튀기는 복음을 싣고



이현철 안수집사

자립대상교회 지원방문에 앞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농기교회가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이었다.

전날 서울 영암교회에서는 농기교회 마을 주민들에게 대접할 삼계탕 재료를 준비했다.

모두가 정성을 들여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 여러 가지 한방 재료와 함께 삼계탕 재료를 넣고 보니 담임전도사의 표정이 아주 밝아 보였다.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삼계탕이 끓여지는 것을 생각하니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 마음도 아주 기대가 되었다. 농기교회 담임전도사와 함께 장로, 집사 그리고 방문단 일행이 삼계탕을 끓이기 시작했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풍경이었다.

이곳 농기교회 마을 주민들이 아주 기뻐할 것 같았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그 기쁨을 나누고자 정성이었다. 폭 삶아진 삼계탕이 한방재료의 향기와 함께 식탁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졌다.

오늘 마을 주민들에게 대접할 삼계탕은 정말 그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할 삼계탕이 될 것 같았다. 이 정성이 그대로 농기교회 마을 주민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농기교회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오고 있었다.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 보였다. 가을걷이 농사일이 대부분 마쳐지고 막바지 겨울나기 준비만 남아있어서 그런지 한결 여유로워 보였다. 그 여유로움과 함께 삼계탕을 먹는다는 생각을 하니 기쁘지 않을 수 없어 보였다.

농기교회 성도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움이 가득해 보였다. 늘 만나는 성도들이지만 모두가 반갑고 기뻐하는 하루였다.

공주시 유구읍 작은 시골마을 농기교회를 처음 만나는 성도들이 무척이나 설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이번 지원방문 일정이 참으로 기대가 되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니 농기교회 담임전도사님은 손님맞이에 한창이었다. 그저 기쁨으로 넘쳐 보였다. 함께 준비하고 있는 농기교회 주방팀도 오늘은 미소가 더 가득했다.

가마솥과 주방에서 폭 삶아진 삼계탕이 마을 주민들의 식탁으로 옮겨졌다. 모두가 서로서로 정성을 들여 준비한 식탁은 마치 하늘 나라의 잔치상으로 보였다. 오늘 이 잔치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놓은 식탁이라고 믿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기쁨의 식탁이 되기를 바랐다. 시골 마을 길은 늘 정겹고 사랑이 넘치는 통로였다. 바쁜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직접 삼계탕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찾아갔다. 정말 하나하나가 정성이었다. 아무쪼록 마을 주민들이 한 끼의 삼계탕 식단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농부들은 막바지 가을걷이를 마치고 겨울나기 준비에 한창이었다.

요즘은 김장철이다. 우리 민족은 김장문화가 있다. 김장이 끝나야 한 해 동안의 일이 마쳐지는 것이었다. 집집마다 김장을 담아서 서로 나누어 먹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것이 김장문화이다. 시대가 흐르면서 삶의 문화도 서서히 변해가지만 여전히 김장문화만큼은 우리들에게 풍성히 남아 있기를 바랐다.

농기교회 주변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부들은 더 행

북하리라 생각되었다. 때때로 일손이 부족하면 농기교회 성도들이 잠시 도움에 손길을 보내드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농기교회 정해일 담임전도사님의 손길은 정말 섬기는 손길이 아닐 수 없었다. 직접 만지고 고치고 짓고 나르고 뽑고 끌고~ 그러다 보니 이 작은 하나님의 집이 부흥되고 마을 주민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 같았다.

오늘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시 농촌 일손 돕기도 함께해 보았다.

농기교회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었다. 바로 찜질방이었다. 찜질방은 농기교회 담임전도사님이 직접 디자인과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찾는 이마다 감탄과 감동 그 자체였다. 오늘은 이곳 찜질방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안마 그리고 어르신 건강관리 예방에 대하여 함께하였다.

오늘은 뽕튀기도 튀겨서 나누어 먹었다. 농기교회 뽕튀기는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다. 물론 뽕튀기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교회로 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뽕튀기가 부풀어 커지는 모양처럼 우리들 서로에게 나누는 사랑이 커져가는 마음 때문이었다.

뽕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퍼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았다. 농기교회 카페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영정사진과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사실 전문가적인 작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정성을 들여서 촬영을 하였다. 얼굴 화장과 머리, 옷매무새도 도와드리며 촬영을 시작했다.

예쁜 미소처럼 사랑이 가득한 일상을 기대합니다~♡ 촬영된 사진은 좀 더 보정을 거친 후에 액자에 넣어서 전달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해 보여지기를 바랐다.

저녁에는 예배가 있었다.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했다. 아침 일찍부터 여러 가지 일정을 지나면서 다소 피곤함도 있을 것인데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 어린 자녀도 지친 모습보다는 힘찬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 지난날들을 기억해 보면 교회에서 떠났던 여름 수련회가 그렇게도 그리웠다.

오늘이 그때 떠났던 여름 수련회 저녁 예배와 같았다. 농기교회 담임전도사님으로부터 미자립교회의 실상과 지금까지 달려온 사명에 대하여 들었다.

전도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과정을 들어보니 농기교회도 쉬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예전처럼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자랑했다.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로 들렸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





루게 하셨다고 말했다. 보잘것없는 종으로 여기면서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했다고 했다.

그렇게 직접 뛰고 만지면서 농기교회를 위하여 섬겼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해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얼마 남지 않은 목회 기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다고 전했다. 농기교회 담임전도사님의 사명을 듣고 나니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이 섰다. 일상에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라고 다짐했다.

농기교회와 마을 어귀 주변에는 빨갛게 익은 감이 풍성하게 열렸다. 달달한 감을 따먹으면서 어릴 적 추

억을 더듬어 보았다. 감 따는 망에 감이 들어오면 성공입니다.

고향에 온 기분인 듯 시골 가는 길목에는 늘 정겹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되니 기뻐다. 뜻하지 않은 쉼터를 만났다. 공주시 유구읍 유구천이라는 곳에 유구 색동 수국정원이 있었다.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이라서 이미 수국은 졌지만 활짝 핀 수국을 생각하니 이곳 유구 색동 수국정원이 참 아름다운 쉼터였겠구나 생각했다.

얼마 되지 않지만 농기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전도사님의 섬김에 감사를 드렸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자립대상교회 지원방문 농기교회,

이번 지원방문을 마치고 함께했던 방문단은 서로가 많은 도전이 되었다.

우선 무엇보다도 확신을 갖게 된 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원방문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돌아오는 발걸음은 물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들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일정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더 확장시켜 이루게 하였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정에서 큰 은혜가 되는 과정들을 만나게 하여 정말 신비스러울 정도였다.

영암교회로 복귀하여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임에도 전광석화와 같이 우리들의 소망에 성령의 불을 지피 주었다. 뽕튀기는 지원방문 농기교회에서 아주 알차게 사용되고 있는 전도 용품이라고 하였다. 뽕튀기를 튀겨서 마을 주변은 물론 유구읍 시내 한자리에서 나누어 주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교회도 농기교회처럼 뽕튀기로 하

나님 사랑을 나누어 보면 좋겠다고 늘 준비해 왔었는데 이번 농기교회 지원방문단의 열정과 기도 덕분에 현물로 기증받게 되어서 영암교회도 뽕튀기를 준비하게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뽕튀기가 튀겨지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쳤다.

아무튼 이번 2024년 자립대상교회 지원방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기뻐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다짐과 결단에 더욱더 확신이 있기를 바랐다.

함께 섬기고 돌아온 영암교회 방문단과 기쁨으로 맞이해 준 농기교회 정해일 담임전도사 그리고 농기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농기교회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모두 감사합니다. Y



세 · 감 · 자 되어



이경숙 권사

싱그런 5월 마지막주 화요일, 유상진 담임목사님을 포함 총 19명이 자립대상교회 두 곳을 방문하였다.

첫번째 방문 교회는,

전주 시내 작은 상가 2층에 위치한 인후초대교회였다. 김

성주 목사님이 2012년에 개척하셨고, 주일예배 인원은 17명정도 되는 작은교회다. 목사님은 인생에 여러 목표를 세웠지만 번번히 길이 막혔고, 대장암 4기와 림프까지 전이되는 암 판정을 받았으며, 암 투병중에 찬양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암이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셨다. 넉넉치 않은 가운데서도 4군데 선교지를 후원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기를 갈망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셨다.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지 목사님의 선교열정이 뜨겁게 느껴졌다.

특산품인 “봉동편강”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사모님의 하얗고 해맑은 표정에서 예수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처절함이 전해졌고, 가슴 한편으로 애잔함이 저며 들었다. 김성주 목사님의 건강과 사모님과 두 자녀(딸, 전도사 사위, 아들)를 위한 기도 부탁을 받고,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두 번째 방문지로 향했다.

두 번째 방문지 소담교회는,

수요기도회에 참석하시는 영암성도님들은 다 아는 우리에게 친숙한 교회이다. 영암교회 후원을 받고 있고, 또 유상진 담임목사님이 베풀어주시는 각별한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고마움을 전할까, 늘 생각

하던 중에 수요식당 (그분의 표현) 과 연결되었다. 수요식당에 오시는 분들께 대접하라고 이른 봄이면 들판에 널려있는 냉이를 캐서 보내주셨고, 늦은 봄이면 쑥을 캐서 쑥개떡을 손수 빚어 보내주셨던 이해선 목사님 교회를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전주 시내에서 50분거리에 있는 소담교회로 이동하는 내내 사람은 볼 수 없었고, 도로 양옆 측사안에 소들로만 가득한 풍경이 펼쳐졌다. 당연히 소들의 그 냄새가 솔솔 코끝을 자극했다.

소들의 냄새가 익숙해질 무렵 드디어 소담교회 도착! 아담한 시골교회! 장독대가 참 정겹다는 첫인상을 받았다. 오후 1시가 넘는 시각 무척 배가 고팠는데 전라도 음식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홍어회 무침과 온갖 나물들, 시골 김치, 냉이된장국 등 사랑과 정성이 깃든 푸짐한 한 상을 손수 차려주셔서 다들 맛있게 배를 먹었다.

식사 후 텃밭에서 돌산갓, 양파와 상추를 뽑았다. 지금 갓김치와 양파종 김치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으며, 또 쑥을 주셔서 쑥절편을 만들어 다음주(6/11일)에 수요식당에서 대접할 예정 ~~^^

그리고 이해선 목사님의 간증!!

4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추자도에서의 사역(4년간 7명에서 43명으로 부흥),

그리고 소담교회로 와서 30년 가까이 사역하는 동안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던 시간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며, 소외당하는 억울함을 겪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건강에 이상이 오고, 구내염을 앓고 머리를 흔드는 병에 걸리고, 온 몸이 망가지는 고난의 연속....!

설상가상으로 작년에는 제방뚫이 무너져 교회와 사

택이 물에 잠기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다.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속에서도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기력을 찾게 해주셨으며, 인생이 광야 그 자체였기에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하루하루 견뎌왔다는 눈물겨운 간증의 말씀을 들었다.

“나의 하나님은 까마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엘리야와 오버랩 되며, 아~ 엘리야처럼 그렇게 사셨구나!!

아직 제방공사가 완전하지 않아 올 여름 수해를 또 입을까 걱정하셨는데, 수해 입지 않도록, 또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기를 부탁하셨다!!!

그동안 자립대상교회 하면 단순히 교회와 여전도회에서 후원하고 월례회때 통성기도 한번 하고 새벽기

도 출석할 때 피상적으로 기도 했었는데, 실제 현장을 방문하고 보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담긴 그분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밀려왔다.

“믿으면 → 사랑하게 되고 → 사랑하면 움직인다”는 믿음의 공식이 떠올랐다.

이번 자립대상교회를 방문한 우리 모두는 믿음과 열정이 몸에 장착되어져서, 믿음의 진도가 팍팍 나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 모두 세.감.자(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흐뭇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Y



기독교 캠프코리아



초등2부 김범준

안녕하세요. 초등2부 온유반 김범준입니다.

저는 지난 1월 시흥시 한국공학대에서 열린 “기독교 캠프코리아” 겨울 성경학교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캠프를 가는 것이어서, 가기 전에는 무척 긴장되기도 했지만 친한 친구들과 같은 기숙사를 쓰게 되어서 좋기도 했습니다.

캠프는 찬양, 복화술 공연, 부흥집회, 비전예배, 파송예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복화술 공연과 부흥집회였습니다. 특히 복화술 공연 중 소장님과 함께 나왔던 인형이 있었는데, 활발히 움직이던 인형 뒤에서 사람 손을 빼니 인형은 움직이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책을 그냥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길었지만 저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되어 힘들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더욱 신앙심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것 같은 기분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캠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자려고 누웠을 때, 이유 없이 눈물이 펄펄 나서 한참을 울기도 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캠프 이후 저는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노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시편 4편4절 말씀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는 구절을 읽었을 때에는 지난 밤 눈물 흘렸던 일이 생각나서 깊이 공감되기도 했습니다. 묵상노트를 쓰면서 달라진 점이 또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기도를 안하고 자는 날도 많았지만 이제는 매일 자기 전에 기도를 꼭 합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서 한결 편안하고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묵상노트도 꾸준히 쓰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Y

겨울수련회 소감문



중등부 유시온

저는 중등부 3학년 유시온입니다.

이번 겨울수련회를 참여하면서 즐거운 중등부 수련회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계 수련회의 중심 활동이 성경통독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사

무엘 상하, 신약의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처음에 읽으셨고 조별로 돌아가면서 읽기도 했습니다.

9시간 30분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졸립고 지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경의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 읽기는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흥미를 끄는 소리에 이끌린 나머지 성경 읽기에 힘쓰지 못한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성경 읽기에 힘써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때에는 통독을 안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성경골든벨 시간은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참여했고 팽팽한 승부를 겨루었기 때문입니다. 패자부활 두 번 끝에 거의 마지막 즈음에 정답을 놓쳐 아쉬웠지만, 우승을 한 후배들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엉뚱한 답을 쓴 친구들 덕분에 많이 웃기도 하였습니다.

수련회에서 가장 인기인 식사 시간에는 선생님들의 요리실력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파스타, 짜장밥이 맛있었고, 야식으로 먹은 떡볶이와 치킨도 꿀맛이었습니다.

조별로 직접 요리를 하는 시간에는 처음으로 고구마 껍질을 벗기고 썰어서 맛탕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다른 조 친구들도 다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미니올림픽 시간에는 많은 종목을 했는데, 상대방 조원들 이름을 외워서 먼저 말하는 조가 이기는 게임이 재밌었습니다.

또 과자를 낚시하는 게임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우리팀의 과자가 차고 넘쳐서 은혜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시간은 저녁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찬양의 열기가 뜨거웠지만, 이번에 들어온 신입생들도 기쁘게 찬양을 드려서 열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기도회 시간에는 오래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했고, 남은 중등부 생활 잘하고, 새로 들어온 후배들도 중등부에 잘 적응하고, 모두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회 마친 뒤 아이들과 밤새 게임하면서 노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어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위해 중등부 목사님 부장 권사님, 선생님들 모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은혜와 감동 재미가 다 있는 중등부!! 우리를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행복한 중등부입니다. 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수련회를 허락해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고등부 박민준

어쩌면 나의 원동력은 사랑임이 자명합니다.

이번 수련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왔습니다. 내가 어렴풋이 그 사랑을 느낄 때면 내면의 행복함이 자연스레 꽃피었습니다. 시작 전부터 이번 겨울 수련회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픈 마음이 부풀어 오르기도 했고,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낼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수련회는 기대한 만큼이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 우리 조의 이름은 ‘겹쟁이 클럽’이었습니다. 얼떨결에 톡 내뱉은 조 이름이 채택되었는데, 여담이지만 조 이름에 걸맞게 꼴찌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교회 수련회에 참가하며 일등은 고사하고 꼴찌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겹쟁이 클럽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즐겼지만, 특히 묵상, 아웃팅, 집회, 대화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합니다. 잡다한 생각들이 자꾸 말하기를 틀어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날 아침에 가졌던 묵상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묵상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 정리되어 나간 순간은 참 은혜로웠고, 그 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점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웃팅은 재미있었으나 꽤나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각별히 눈을 가리고 돌아다닌 것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벼운 신호들도 공격적으로 인지하는 등 눈을 가렸을 때 몸이 경직되고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히 행했던 일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고역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가린 나를 열심히 도와준 우리 조원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겹쟁이 클럽’이 하나 되어 다양한 난관을 헤쳐나간 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대화의 시간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습니다. 평소 누군가와 오순도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터라 대화의 순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분들과 대화하며 다양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대화 속에서 피어난 다양한 상념 중 가장 선명히 만개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고등부 공동체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였습니다.

나의 구불구불 곱슬머리를, 올라간 입꼬리를, 이상한 말버릇을, 큰 소리의 웃음소리가 이곳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선생님께서는 고등부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곱씹을수록 감동적이었습니다!

예배는 2025년 고등부 표어에 걸맞게 빛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빛을 끄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빛을 끄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는 것들은 모두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피하고픈, 큰 용기를 수반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현듯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라면, 기꺼이 용기를 낼 힘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수련회에서는 고등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큰 사랑을 부어 주셨다고 느껴집니다.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을 어렵게나마 느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득한 사랑 속에서 나는 정말이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건 무한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주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측량 불가능한 정말이지 큰 존재이시구나 싶었습니다.

이번 간증문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습니다. 쓰면서도 이렇게 사랑, 사랑만 이야기해도 될까 싶었지만, 결국 사랑인 걸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용기들이 피어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는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또한 첫 문장인 ‘어쩌면 나의 원동력은 사랑임이 자명합니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꽃 피운 생각인 듯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당연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사랑은 너무 소중하고 고결하기에 언제나 큰 힘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Y**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희 집사

저는 작년 가을 소그룹 리더의 권유로 예비리더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집이 교회와 멀고 둘째 아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예배에는 자주 늦었고 자녀들만 교육부서에 데려다 주고는 저 자신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후에 이어지는 소그룹 모임에서 교제만 나누고 돌아오는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절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zoom으로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마음 속에서는 현장예배와 대면 모임에 대한 갈망이 커진 반면 육체적으로는 비대면 예배와 모임의 편리함에 익숙해졌고 코로나 이후에도 잠깐 기쁨의 순간이 있었지만 기도 생활이나 말씀을 읽고 따르려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텅 비고 무덤덤한 상태로 교회에 다니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1·2'를 매주 한 챕터씩 읽고 나누는 동안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던 저의 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사는 동안, 큰 고난이나 근심도 없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하고 여겨졌던 그 시간 동안, 실은 내 삶에 기쁨도 사랑도 행복도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교만했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여기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내 안에 가득차있는 나를 내려놓으며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차기를 기도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남편과 아이들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았어야 했는데, '와~ 그동안 저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실망스러웠을까' 생각하면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불순종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던 죄와 직면하는 시간은 힘들었지만 이후 하나님은 큰 사랑과 용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가득한 내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는 죽었으니 더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대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은 자아가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 보자고 마음 먹고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기쁨과 감사가 넘쳤지만 아주 짧았고 금방 잊혀져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해야할 일에 우선 순위를 빼앗기며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믿음으로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임재를 떠올리며 사소한 생각을 나누고 묻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다보니 어느새 그동안 문제라 여기던 것들이 더이상 중요치 않게 되었고 삶이 재정비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재 ‘예수님의 사람2’에서는 기도의 힘에 대해 배웠고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었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마귀의 실체와 인정하고 싶지 않던 영적전쟁이 분명히 있으며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과 전도라는 것이 그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 속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저에게 예비리더교육에 참여하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함께 한 동역자들에게 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다시금 뜨거웠던 때를 떠올리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주셔서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무엇보다 무감각하고 기쁨과 소망 없이 지내던 저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길 원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잊지 않고 매일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에 기쁘게 임하려 합니다. **Y**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홍미정 집사

영암교회에서 실시한 예비 리더교육을 통해 신앙하는 삶에 대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사복음서로 예수님행적에 대해서 배운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받았음에도 말씀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묻지 않았습니다. 값없이 선물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되면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근심,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불평, 원망이 없는 매일의 감사함으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기쁨으로 전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두려움과 기다림의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기는 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육과정 가운데 나에게 질문하고 진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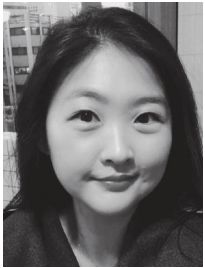
돌아보니, 나는 걱정과 염려로 불안함과 조급함으로 혼자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과 대화하며 소통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나 자신에게 관대하였지만 삶의 전부가 나태하고 교만하였음을 깨닫게되었습니다. 거저서 만한 믿음조차도 보이지 않았기에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삶을 통해 기쁨으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앞에서 말씀을 품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삶을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비리더과정 ‘예수님의 사람’ 16주 과정을 성실하게 이끌어주신 목사님들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한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Y**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권정연 성도

박재혁 목사님께서로부터 소그룹 예비리더 교육 참여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교회에 등록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고, 소그룹의 리더가 되기에는 아직 너무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되어 ‘지금 이 교육을 받는 것이 나에게 합당한가’를 놓고 고민

하고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교육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반, 부담 반으로 시작된 교육은 ‘PGM’을 통해 말씀을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고(Passage)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 번 깨닫고 더 가까이 다가 가게 하며(God) 제 삶에 투영하고 적용하게 함으로(Me) 매일매일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 PGM 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당장 리더로 세워질 계획이 없어서 이 교육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스스로 궁금하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네 가정에서 먼저 리더로 서라’는 메시지를 주시며 그저 목적 없이 받고 있던 교육에 큰 의미를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과 남편을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저를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아이들과 매일 자기 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온전히 제 자신을 죽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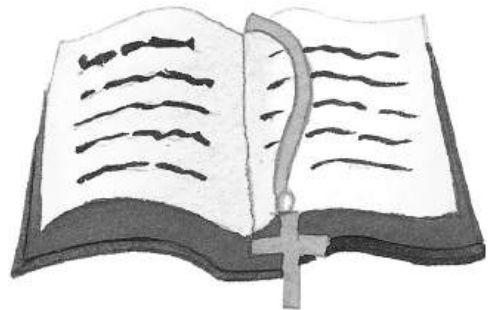
것이 쉽지 않지만, 이 6주간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회개하는 법과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배우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어떤 자리에서도 나를 내세우기보다 순종의 마음으로 임하며 내 안의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



일대일 제자양육 소감문



이신혜 성도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나신 손미선 권사님과 일대일 제자양육 16주 과정을 매주 함께하며 잘 모르거나 머릿속에 희미하게 흩어져있던 개념들이 다듬어지고, 뚜렷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교회 관계 안으로 한 발짝 내디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넘어서 서로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처음엔 다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내 따뜻한 만남으로 채워져 영적 유익이 되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 증도에 하나님을 믿은 저와 달리,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양육자와의 교제는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풍성한 만남으로 이끌며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공감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신앙은 혼자서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동행과 가르침 속에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내 삶을 기꺼이 나눌 때 그 감동과 풍성함이 배가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주 성경 구절을 누적 암송하면서 암송하는 흥미와 유익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힐 거라는 제 생각과 달리, 초반에 암기한 성경 구절은 여전히 까먹지 않고, 제 안에 각인이 되어 반복할수록 선명해지는 말씀의 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과정은 늘 기도로 시작하여 중보기도로 끝맺음을 하였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의 신앙을 권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론 예상치 않게 눈물이 터져 나오며 우릴 향하신 성령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버벅거릴 때도 많았지만 이해해주시고 늘 격려해주신 손미선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육은 끝났지만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기로 하나님과 깊은 동행이 되기를, 또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Y

일대일 제자양육



임윤식 집사

안녕하세요. 일대일 제자양육을 마친 3남선교회 임윤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일대일 제자양육이라는 것이 생소하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권유로 인해서 시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1개월 정도는 낯짜와 시간을 어기지 않으려고 긴장을 하다 보니 좀 힘들고 시작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한주 한주 진행하면서 마음의 평온함과 저의 시간에 맞추어 늦은 시간이라도 제자양육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인도해주시는 김웅태 장로님을 생각하니 제가 나약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는 숙제, 암송, 성경책 미리 찾아보기 ... 저도 모르게 멀리했던 성경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장로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는 과정과 매일 묵상함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저에게 이 모든 시간은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대일 제자 양육훈련을 받으며 제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길로 걷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오직 순종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16주 긴 여정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Y

일대일 제자양육



조윤진 성도

일대일 양육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으며 은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깊이 알고자 노력하지 않고 습관적인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왜 죄인일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만 영접하면 천국에 간다고?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습니다. 일대일 양육은 흩어져 있는 조각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예수님의 큰 사랑을 제대로 만나게 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16주 동안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암송하고 권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16주간 말씀에 집중할수 있었으며, 설렘과 은혜와 고통과 감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감사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Y**



참 좋은 영암학당



문영숙 집사

안녕하세요. 양육훈련부 영암학당 부팀장 문영숙집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암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거치는 동안 유년부 교사, 찬양대

원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청년부에서 지금의 남편(이관택 장로)을 만나 결혼하고 나서는 중등부 교사, 재정부에서 봉사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교회 봉사와 프로그램 참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2년 전부터 예배안내를 시작으로 다시 봉사하게 되었고, 영암학당도 참석하였습니다.

2년 전 영암학당에 처음 참석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은 저에게 참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잠깐 얼굴 뵙는 정도였던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말씀을 들으니 새롭고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소그룹모임과 시간이 겹쳐 매 주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시간날 때 마다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좋아서 올 해에는 영암학당에서 섬기겠다고 자원하여 영암학당 부팀장으로 섬기게 되었고, 올해 영암학당 봄학기 #1을 마쳤고, 봄학기 #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영암학당 봄학기 #1은 '복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2'라는 주제로 8주 동안 박재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웠고, 지금은 #2 '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는 주제로 김기동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암학당 시작 20분 전에 가서 참석자 출석 체크, 교재와 간식 배부, 자리를 안내하고, 끝나면 뒷정리를 통해 오신 분들이 편히 말씀 듣고 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오전 11시, 본관111호를 꼭 채울 만큼 참석자들이 많고, 참석자들로 인해 열기가 뜨거우며, 간식으로 준비한 떡이 부족하여 그 수량을 늘리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참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8주 동안 개근하신 분들에게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영암학당은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은혜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참석하신 분들 모두 좋다고 하셔서 봉사하는 저도 참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영암학당에서 부팀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격려하고 도와주신 양육훈련부장 김웅태 장로님, 영암학당 팀장 서동화 집사님, 부팀장 김수연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기 장로

지난 1월 5일 주일 오후에 향존직 은퇴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아 안수집사님, 이경희, 고순옥, 임수진, 문현자, 김인옥, 정옥자, 최수미, 신영주, 이광옥, 김경순, 임명자 권사님, 장기정 협동권사님, 문성호, 차승원, 허충욱 집사님 등 총 16분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향존직을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선배님들의 섬김과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은퇴예배에서 있었던 최성기 장로님의 찬하사(攢賀辭) 말씀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충성스럽게 섬기시던 안수집사님 한분과 권사님 열한분의 은퇴예식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거행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온 교우와 가족, 친지들이 함께 하신 가운데 영광스럽게 은퇴하심을 진심으로 찬하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말씀만을 뜻대로 삼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달려가며 애쓰셨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걸어 오셨던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힘든 인내의 시간도 있으셨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분 한분의 소중한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걸어 오셨던 고귀한 발자취를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허락해 주신 다양한 은사대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충성을 다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도 먼저 전심을 다해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쌓아올린 사역들은 영암교회의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70년의 보배로운 역사가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눈물과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만들어 놓으신 발자취는 영암교회의 다음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소중한 가치를 본으로 삼아 섬겨오셨던 구역과 지단체는 130여개의 소그룹으로 재탄생하는 토대가 되어 영암교회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주도 빠지지 않고 실천하셨던 전도와 구제의 손길은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위로처가 되게 하셨음은 물론, 매 주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기도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찬하합니다.

사랑과 헌신의 여정을 짧은 시간에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아쉬움이 크지만, 그 신앙의 본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간직 될 것입니다.

특히, 한 발 한 발 미래를 향해 갈 때 마다, 또한 어렵고 힘든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존귀한 헌신의 역사가 기억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쌓아오신 사역의 역사와 신앙의 자산을 전통으로 잘 계승하여 100년을 향해 가는 길에 교훈으로 삼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법이 정해놓은 제도적인 사역의 구속에서 벗어나 새롭게 부여해 주신 자유로운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암교회는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완숙한 모습의 “섬김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전히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시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향해 달려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응원드립니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승리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삶이 주님 안에서 펼쳐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찬하사에 갈음합니다. Y

2025년 1월 5일
당회서기 최성기 장로



교회 구제사업 소개

영암교회는 복음적인 교회, 현대적인 교회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설립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으로는 예배와 소그룹으로 든든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면 울타리 너머로는 밀알헌금을 통해 구제지역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립은둔청년들을 위한 섬김을 비롯하여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손을 잡고 살맛나는 안암동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월7일(화) 밀알헌금을 통해 안암동 내에 저소득 취약계층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난방용품을 지원하였다. 이후 1월13일에는 안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독거노인 가정을 위한 반찬지원금(12개월분)을 전달하였다.



1월 21일(화)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 명절선물꾸러미로 라면2000개(100박스)를 준비하여 가가호호 찾아뵙고 전달하였다. 이후에도 화요형제지역팀과 협력하여 안암동지역사회 독거노인 가정을 위한 도시락(매주 5가정)을 준비하여 전달드리고 있다.



2월 14일(금) 작년(2024년) 성탄절 중고등부 바자회 수익금으로 기프트 카드를 만들어 안암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 청소년 14가구를 지원할 수 있었다. 기프트 카드를 지원받은 한 청소년이 직접 교회로 찾아와 수줍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였는데 그 기쁨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전달식에 직접 참석해 주신 정영미 동장은 “귀한 마음과 손길로 함께 해주신 영암교회 중등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피어날 안암동의 새봄을 기다리며, 올

겨울에도 영암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전했다.



3월8일(토) 고등부에서는 작년(2024년)부터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이웃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안암동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작은 선물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 청소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4월 16일(수) 강원 및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 서울동부사업본부(본부장 주경남)를 통해 긴급구호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후원금은 산불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이웃 교회들을 돕기 위해 성도님들의 정성과 뜻이 모여 마련되었으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 현금(총20,471,000원)은 월드비전을 비롯하여 본교단 사회복지부, 안동지역 교회 피해 복구를 위해 전달되었다. **Y**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15:12)

우신소석 장학회 통합 원년에 즈음하여...



조규완 장로

지난해 우리 영암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민족상잔의 포연이 채 가시지 않은 1954년 11월 14일, “복음적인 교회”, “현대적인 교회”,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라는 3가지 정신을 지향하는 교회로 승인

동 김창절장로님, 최운옥권사님 자택에서 7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영암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늘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신실한 믿음과 복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 왔는데 벌써 70주년을 맞이 하게 되다니 그 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안겨 줍니다. 여러 가지 뜻깊은 행사와 지나온 영암의 발자취를 뒤돌아 보며 모교에 대한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특히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안암동에 살면서 영암교회를 다녔던 시골뜨기 소년이었던 나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따뜻하고 정말 포근한 교회였습니다.

70주년을 뒤돌아보면서 문득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둘 떠오르는 것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머리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감사함과 자랑을 넘어 자부심과 긍지마저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교회의 장학사업입니다. 보통 웬만큼 큰 규모의 교회라고 해도 장학회는 대부분 하나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우리 영암교회는 오래전부터 두 개의 장학회를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교회규모

에 비해서 두 개의 장학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측면에서나 여러모로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다음세대를 준비하고 그에 대한 후학 양성과 미래에 대한 가치설계와 해안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많은 영암의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 그리고 아낌없는 물질적인 후원(장학현금)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 두 장학회가 바로 기존의 “우신(牛臣)장학회”와 “소석(小石)장학회”입니다.

우선 두 장학회가 금년도 통합되기 전까지 운영되어 왔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이후 글 갈무리에서 통합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신(牛臣)장학회는 故 황광은 목사님의 아호를 따서 1971년 8월 29일 설립하였습니다.

제2대 담임목사님으로 1961년 1월 22일 부임하여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활신조로 삼으시고 당신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바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불우한 청소년을 위하여 헌신하시다가 1970년 7월 15일 지병인 심장병으로 소천하신 후 미망인 김유선 사모님께서 장학금 1,000,000원을 회사한 데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故 황광은 목사님의 이웃사랑 정신을 본받아 장차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공헌 할 인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교회안에서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학회 설립 이듬해인 1972년 3월에 3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중고등학생에 이어 대학생에게까지 확

대하여 지급을 하였고 이후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2004년과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2021년부터는 대학생을 위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선교사 자녀, 그리고 학업사정이 어려운 선교사 추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미자립대상 교회 목회자 자녀등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폭넓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석(小石)장학회는 故 임옥 목사님의 아호를 따서 1999년 설립하였고 그해 11월 28일 바로 정관 제정을 통하여 정식 출범을 하였습니다.

제3대 담임목사님으로 1970년 10월 18일 부임하여 1999년 10월 20일 소천하시기까지 말씀연구와 강해, 그리고 복음선교에 헌신하셨고 특히 다음세대를 위하여 목회자 후학양성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평소 목사님의 뜻에 따라 이연옥 권사(故 임옥 원로목사 미망인)님께서 출자한 자금과 영암교회의 보조금 및 기타 후원금을 통하여 장학회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故 임옥(아호 小石)원로목사님의 남기신 뜻을 따라 소석의 신앙노선을 계승할 목회자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장학생 선발대상자를 본 교단 신학대학교 목회자 후보생으로 명시하고, 이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본 교단의 수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든든한 목회자를 세우는데 큰 일익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위와같이 1971년 이래로 수십년 동안 두 개의 장학회를 유지해 오다가 70주년을 맞이한 작년 2024년 말, 우신과 소석 장학회 이사회에서 두 개의 장학회를 하나의 장학회로 통합하여 시대에 부합되며 보다 일관성 있는 장학회 운영을 하자는 취지로 통합하자는 의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한 교회에 두 개의 장학회가 있다

는 것이 지금까지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외부에도 또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장학회 재정관리와 장학회를 운영하는 힘의 분산 측면 그리고 일관성 있는 장학회 운영관점에서 보면 통합운영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더 설득력을 얻어 양측 이사회의 이사회 정식결의와 두 장학회 유족측 동의 및 당회 의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개별 운영되어 왔던 두 장학회를 정식으로 통합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장학회 명칭은 기존 두 장학회 유족측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우신소석장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기존 두 장학회의 정관을 세밀히 검토하여 통합정관을 새롭게 제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기존 두 장학회의 설립취지와 목적 등 초기 설립자 유지는 그대로 계승,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장학회 통합을 이름으로서 장학재정측면에서나 운영측면에서 더욱더 건실하고 명실상부한 영암교회 “우신소석장학회”가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 그리고 아낌없는 물질적인 후원으로 지원 해 주셨던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다음세대를 준비하고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 영암교회 “우신소석 장학회”가 큰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Y**

늘 푸른 대학을 섬기며...



이성달 안수집사

먼저 늘 푸른 대학 상반기 과정을 은혜중에 마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영암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으로 봉사해 오시다 가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어 비록 육신은 연약해지셨지만 오로지 말씀만을 의지하며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시는 어르신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마련한 늘 푸른 대학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유익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푸른 대학의 팀장직을 맡아 진행하면서, 봉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참여하시는 여러 어르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저의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늘 푸른 대학은 1~3주 과정은 건강을 주제로 한 강의 듣기와 부채 만들기 실습 그리고 동요 부르기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4주차에는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항상 소풍지는 어르신들의 체력에 맞게 차량으로 약 1시간정도의 거리로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조금만 걸어도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느낄 수 있고 주변에 벤치가 많아 편히 앉아 쉴 수 있으며 가까이에 맛있는 점심을 드실 수 있는 식당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번에 갔던 물 맑음 수목원은 이 모든 조건에 딱 맞는 곳이었으며 어르신들께서도 좋아해 주셔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가는 차 안에서의 담소와 맛있는 식사,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삼삼오오 모여 나누시는 친교를 통해 지나간 시간을 회상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시간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기쁨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소풍지에 만발한 봄의 전령사인 벚꽃을 보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몇몇 어르신께서 자동반사적으로 벚꽃을 채취하시어 약간의 소득을 얻으셨지만 그곳 관리자는 당황하셔서 경고와 불만을 표하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공지하고 몇 번이고 당부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학기에 늘 푸른 대학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간단히 홍보하고자 합니다.

영암교회 늘 푸른 대학은 70세 이상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웃 어르신들께서 참여



하실 수 있으며 상, 하반기 각 4주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1,2,3주차는 어르신들의 주관심사인 건강강좌, 찬양 및 레크레이션, 공작활동 등 여러가지 주제로 이루어지며 4주차에는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갑니다.

걷기 힘드시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 많이 걷지 않는 곳으로 가며, 휠체어와 봉사자들이 도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차량 이동중 화장실이 급하시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험 많은 운전기사분이 즉시 가까운 화장실에 차를 세워드립니다.

혹시나 다른 분들에게 누가 될까 주저하시는 분들도 용기 내어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그동안 애쓰며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올 하반기 과정에 더 많이 함께 하시어 교회에서 마련한 늘 푸른 대학을 통해 잠시나마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스태프들이 열심히 응원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늘 푸른 대학에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로 지원해 주시는 담임목사님과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김기동 담당목사님, 그리고 저의 든든한 동역자인 총무권사님을 비롯하여 애쓰시는 모든 스태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매 학기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자리를 빛나게 해 주시는 글로리아 중창단 대원들께도 이 글을 통해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

재정부를 소개합니다

- 재정부 -

본관 1층 행정실 뒤쪽에 현금을 계수하는 재정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재정부는 영암교회의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주요 부서 중 하나입니다. 교회의 총16개 부서의 예,결산을 조율하며, 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재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일 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는 공동의회를 통해 지난 한 해의 결산과 새해의 예산을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두 달마다 열리는 제직회를 통해 교회 재정의 흐름과 특별 지출 사항을 점검하며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교회의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재정부는 성도님들이 드린 현금을 매 주일 정확하게 계수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들어오는 현금뿐만 아니라 주중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현금도 체계적으로 집계하며, 교회 내 각 부서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집행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금 계수와 재정 관리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저녁예배가 있었던 시기에는 예배가 끝난 후 늦은 시간까지 재정부가 운영되었으며, 하루 종일 헌신이 필요한 봉사 부서였습니다. 이후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수작업 과정이 많이 간소화되었고 업무 시간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오

후예배가 끝날 때까지 재정부의 일이 이어질 정도로 큰 책임이 따르는 역할을 합니다.

재정부에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 현금이 많지 않았지만,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온라인 현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후에도 온라인 현금을 이용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현금 계수 업무가 보다 간소화된 것이라고 김영호 집사님은(20여 년간 재정부 섬김)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재정부의 운영 방식이 달라진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재정부에서 봉사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회계를 맡고 있는 박성현 안수집사님과 이주혁 집사님은 공통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금봉투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현금 액수가 다를 경우, 일일이 성도님께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름을 적지 않고 현금하신 분 중에서 주보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 동명이인이 있다보니 구역 표시가 없을 경우 현금하신 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재정부 봉사자로서 결석이 어려운 점도 부담이 될 때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지철 장로는 "6.25 전쟁 직후 창립되었던 영암교회는 어려운 환경과 재정적 위기 속에서도 선교와 구제에 있어 결코 인색하지 않았으며 특히 황광은 목사님께서 시무하셨던 1960년대에 '버마 수해지역 돕기'를 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재정부를 섬기면서 아쉬운 점은 성도님들이 교회 재정에 대한 관심을 더 깊이 가지지 못하고, 공동의회와 제직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단순한 관리의 영역을 넘어 하나님의 사역과 섬김을 이해하고 지속하고 확장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를 더욱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며 협력해 가야 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재정 운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과 안내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써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라고 재정부를 소개하였습니다.

재정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앞으로도 영암교회의 재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사용되며,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2. 교회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회와 제직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세심하고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3. 교회의 헌금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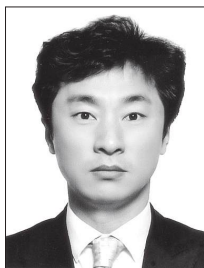
4. 재정부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육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정부는 부장이신 장지철 장로님 이하 8분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김영호, 김봉기, 김진균, 김균모, 장혜성, 이주혁, 박성현, 강운중(직함 생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재정부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Y



보이는 것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 방송부 -



김정래 안수집사

안녕하세요, 영암교회 미디어방송팀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정래 집사입니다.

저희 미디어방송팀은 교회에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 교회예배 및 행사 준비, 진행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미디어, 방송 관련 업무
2. 영상, 음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3. 교회 사진, 영상, 역사 자료의 관리
4. 영암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도메인, 간이형 서버관리 운영 등의 업무

이러한 일들의 진행을 위해서

문민지 선생님께서 자막과 영상을, 남승관 안수집사님께서 음향을 담당해 주시며 제가 영상을 담당하고 문정식 안수집사님께서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4명의 실무진이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이분들이 열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김민영 장로님이 항상 따뜻한 미소로 식도락을 즐기게 해 주시고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에스겔 목사님이 애써 주시고 계십니다.

매 주일마다 진행되는 예배는 매번 생방송을 찍는 것 같은 긴장감을 가지게 하는데 특히 유튜브 송출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실수를 하게 되면 실수까지도 전국에 송출되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실제 예배의 진행자들과 사전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돌발상황은 발생하는 것이라 순발력과 임기응변 능력도 필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끼리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팀워크를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전문성을 갖추고 대체 인력들이 준비되어 만전을 기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더욱 온전하게 드러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Y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조가대 -



이선희 권사

백합화 찬양대 단독방에 전 경희 팀장님이 장례공지에 대해 올려주시면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암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함께 공유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오버랩

되면서 슬픔이 올라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장 최근에 천국환송예식 때 부른 찬송가의 구절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마음 속으로 많이 읊었습니다.

저희 백합화 찬양대는 지휘자이신 김성은 권사님이 천국환송예식 때 부를 곡을 기도를 드리고 선곡하는데, 정해주는 곡들이 대부분 상을 당하신 가족분들께 위로를 드리는 것 같아서 그 또한 은혜가 됩니다.

예전에는 교구별로 조가대가 있었는데 유상진 담임 목사님께서 영암교회에 부임하시고 몇 년 후에 조가대를 통합하게 되어 담당이셨던 이철웅 목사님께서 당시 지휘자셨던 송재희 권사님과 팀장님이셨던 김혜선 권사님의 임원분들이 의논하시어 조가대의 이름을 백합화 찬양대로 지었으니 10년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 시무권사님들이 조가대 단원이셨으며 장례가 났을 때 새벽 5시쯤 모여서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고 찬양 연습을 하고 새벽기도회에 모

두 참석하신 후 버스에서 가운 입고 천국환송예배에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조가대 수련회 때는 상례위원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예법에 대해 공부도 하셨다고 합니다. 헌신 예배 때는 상하의 흰색을 입고 특송을 부르셨다고도 합니다.

입관예식, 천국환송예식, 화장장 동행까지가 상례위원의 봉사입니다. 천국환송예식 때 조가를 부르는데 그 때 백합화 찬양대가 봉사합니다.

조희자 권사님, 정선례 권사님, 이순주 권사님 등의 여러 권사님들께서 교구별로 헌신하셨고 그 뒤를 잇고 또 이어서 현재의 조가대가 있어 슬픔을 당한 유가족분들께 온 마음을 가득 담아 찬양으로 하나님 의위로하심을 전해드릴 수 있으니 상례위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큰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현재 팀장 전경희 권사님, 총무 이정숙 권사님, 지휘 김성은 권사님, 반주자 이금 권사님 포함 총 23명이 섬기고 있습니다.

1년 밖에 되지 않은 새내기 단원이지만 주님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오래도록 영암교회 백합화 찬양대의 단원이고 싶습니다. **Y**



영암의 자랑 수요맛집

- 수요자매회 -



이흥숙 권사

어느날 수요 예배 후
이경숙 권사님께서 “육개장
먹고 가” 하시며 식당으로 부
르셨다. 마침 예배 후 배고픔
도 있어서 식비 2,000원을 계
산 후 식사를 했다. 그동안 먹
어보지 못한 육개장의 풍미와
맛이 일품이었다. 너무나 싼

값에 맛있는 것을 공짜로 먹은 듯 하여 주방 설거지
라도 해 주려고 훌쩍 발을 디뎠다. 나와 같은 생각인
지 이선희 권사님 · 윤희정 집사님 두 분이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다. 본인들의 장화도 직접 준비했다고 한
다. (꼭 설거지를 하시겠다는 결심!)

주방의 일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거의 일이 끝나
려는 순간에 열무김치를 비롯한 온갖 식재료들을 몇
수레 실어오는데 깜짝 놀라서 물으니 다음주 수요일
음식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설거지만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마음이 또 미안해서 재료들을 다듬으
면서 들으니 수요예배에 오신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자비량으로 따뜻한 국 한 그릇 대접하고 싶어서 시작
된 것이 수요자매회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언저리에서 지
켜보는 내게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동안의 헌신이
가슴 뭉클했다. 어느 날엔 손목에 파스를 붙이신 분,
데어서 화상 연고를 바르신 분, 허리를 부여잡고 걸
으시는 분들 등등…… 수요일이면 8시 이전에 오셔서
모든 음식을 준비 해 놓고 예배 마치자마자 주방으로
뛰시는 분들이다.

“오늘은 명 수 대비 손해야”, “오늘은 조금 남았네”,
“오늘은 어떤 분이 커피 값 주셨어 넘 좋아 하하” 마

치고 결산하는 옆에서 나누는 대화도 너무나 정겹고
순박하다. 본인들이 식비를 내고 봉사를 하면서도 늘
즐겁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피로감도 싹 없어
진단다.

맛있는 집 밥 오찬을 맛있게 드셔주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감사 인사와 교인들의 인사가 너무도 감
동적이어서 항상 힘의 원천이 된다.

주방팀장을 맡으신 이경숙 권사님, 음식물 쓰레기
불끈 들어 올리는 가느다란 팔에 파스가 사라질 날
이 없으시다. 대표 셰프 전경희 권사님은 양념을 대
충대충 넣는 듯 하지만 머릿속에 계량컵이 장착돼 있
는 듯 손 끝이 스치기만 해도 감칠맛이 장난이 아니
다. 봉사자들 일일이 챙기며 간식거리 챙겨주는 사랑
의 윤명숙 권사님, 모든 식재료 준비하며 메뉴 설정
에 공헌하는 안정원권사님을 비롯한 기타 모든 봉사
자들이 밥 · 국 · 반찬만들기, 설거지 · 식수저와 컵
씻기 · 식기류 닦아서 진열하기 등 누가 시키지 않아
도 스스로 일을 찾아하신다.

모든 봉사자들의 밝은 미소와 정성이 담겨져 있는
수요 맛집에 많이 많이 오세요~ 수요일에만 열리니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암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좋
습니다. 직장인도 좋습니다. 전도 대상자라면 매주
밥 사줄 기회가 되겠네요. 하하.

모두모두 수요 맛집으로 오세요~ Y

수요예배 후 식사를 위해 보이지 않게 섬기고 있는 자매
들을 통칭하는 말. ‘화요형제’가 있으니 수요일의 모임은
자연스럽게 ‘수요자매회’가 됨.

〈편집자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섬기는 삶

- 운구팀 (남선교회) -



김동호 안수집사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돌보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나의 흐트러진 믿음의 모습을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올 한 해 운구팀장으로 섬기는 최에스겔 목사님의 말씀에 무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앞섰지만, 묵묵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지혜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많은 섬김과 봉사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교우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마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오래도록 밀려옵니다.

오랫동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기도와 사랑, 섬김으로 헌신하신 분들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저 또한 그분들의 신앙의 열심을 닮아가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빠르게 변화해 가는 세상의 현실로 인해, 마음은 있어도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을 아쉬워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다시금 힘을 내어 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시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 속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장례 운구는 특히 더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갑작스러운 슬픈 소식에도 언제나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교역자님들과 장례위원, 조가대를 통해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슬픔과 아픔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삶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안수집사님들이 주축이 되어 운구팀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저의 작은 소망도 함께 나눠 봅니다.

영암의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사랑, 섬김과 헌신으로 저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Y

아틀리에 메멘토 모리⑤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



강진구 안수집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부고 기사'에 담긴 의미

미국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는 중앙일간지나 지방신문 가릴 것 없이 한국과는 다른 특이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죽음과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곁들인 '부고 기사'(obituary)를 꼭 실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고

기사는 죽은 이의 이름과 자녀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가족관계 그리고 장례식장과 발인 날짜 그리고 마지막에 연락처를 적은 단출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분량은 한두 줄 밖에 안 되는 거의 간단한 메모 수준으로 고인을 아는 사람들과 조문객들을 위한 정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신문사들은 부고 기사 작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부고 기사가 가진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까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부고 전문기자로 잔뼈가 굵은 제임스 해거티 기자는 미국의 부고 기사 문화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부고는 단순히 죽음을 알리는 공지가 아니다. 그 사람이 인생에서 무얼 하려 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작은 전기(傳記)다. 명성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거기엔 크고 작은 가르침이 있다. 이 때문에 대형 언론사들은 부고 기사에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 WSJ만 해도 미리 써놓은 부고가 수백 건이고, 뉴욕타임즈(NYT)는 아마 수천 건을 쟁여놨을 것이다.”

(2025년 1월 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미국 신문의 부고 기사에는 한 인생에 대한 조망이 이루어지도록 중요한 경력이나 사건 등에 대한 핵심사항이 들어 있고, 대상 또한 국내외 유명인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인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기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고인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내가 죽은 뒤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하는지가 부고 기사에는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이다.

좋은 부고 기사를 남기고 싶다면

마크 펠링턴 감독의 영화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The Last Word, 2017)은 영어로 된 원제목보다도 한국인이 영화의 주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잘 된 제목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한때 잘나가던 광고회사의 보스였던 해리엇(셀리 맥클레인)은 건강이 악화되어가는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주변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음을 느낀다. 만일 이대로 죽는다면 자신의 부고 기사가 좋을지 없음을 직감한 해리엇은 신문사를 찾아가 자신의 부고 기사를 자신이 살아있을 때 먼저 검토하겠다는 황당한 제안을 한다. 부고 기사 전문기자인 앤(아만다 사이프리드)과의 격론과 충돌 끝에 해리엇은 앤이 자신의 좋은 부고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완벽한 삶의 마지막 막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이 영화의 미덕은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훌륭한 부고 기사가 갖추고 있는 4가지의 필수 조건을 알려주었다는 데 있다.

첫째,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둘째, 친구와 동료들의 칭찬을 받아야 한다.

셋째, 우연히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그 누군가가 사회적 약자일 경우는 더욱 좋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 구분할 수 있는 나만의 와일드 카드를 가져야 한다.(나만의 독특한 인생이 있어야 한다.)

해리엇은 이미 훌륭한 부고 기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 그녀의 괴팍하고 까칠한 성격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도 없지 않았지만, 전문의로 성장하여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딸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료의 숨은 칭찬도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이 몰랐던 훌륭한 부고 기사의 조건을 나중에야 비로소 발견한 셈이다.

이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훌륭한 부고 기사를 만들기 위해 그것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있다. 소외된 흑인 여자아이의 멘토가 되어주고 자신이 즐겨들었던 옛날 노래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DJ역할도 하게 된다. 결정적으로 자신의 부고 기사를 쓰는 기자 앤은 해리엇의 장례식장에서 해리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남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는 고백에 이르게 된다. 훌륭한 부고 기사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이다.

신앙인의 '와일드 카드' 뒤에 존재하는 하나님

만일 모세의 부고 기사가 '광야일보'에 실린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자. 그는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았고, 백성들의 불평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로 칭찬과 존경도 받았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

여 노예 된 백성을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다.

훌륭한 부고 기사 4가지 조건 중 3가지는 충족된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세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부고장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와일드 카드'가 있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을 능가하는 기적을 행했으며, 홍해를 가르고, 시내 산에서 직접 십계명을 받는 유일무이한 경험을 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했던 그의 독특한 영적 교류는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짓는 그만의 와일드 카드가 되었다.

모쪼록 그리스도인의 부고 기사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인도하심을 배경으로 보여줄 수 있는 와일드 카드 하나쯤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Y**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조명훈 교육전도사

2024년 12월 29일부터 영암교회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섬기게 된 조명훈입니다. 영암지를 통해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서울에서 살아왔고, 현재 장로회신학대학원 3학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3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지만, 10대 후반까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전도한 친구의 신앙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장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목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방황하다가 결국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대학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는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 방황의 시간들조차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덕분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해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은 주로 2-30대 대학청년들과 함께 하며 찬양사역을 해왔습니다. 찬양을 워낙 좋아해서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싶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새롭게 고등

부 아이들과 만나게 되면서, 이들의 때문지 않은 순수함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10대라는 황금같은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임하기 전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교회의 벽돌 색깔만큼이나 포근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 첫 예배부터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려는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뵈고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도 매주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또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불꽃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제 모습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만큼은 잃지 않고 매 주일, 매 사역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서 전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볼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인사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한 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전도사님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천천히 그러나 깊게 가까워져 가자!" **Y**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강정무
(3040)



김경숙
(4여, 안암3)



김미애
(3040)



김용경
(6여, 안암1)



설옥란
(1여, 보문3)



송금자
(에스더, 삼익1)



신창희
(3여, 옥수)



안광자
(유니게, 보문3)



이명호
(1남, 안암3)



이영은
(3040)



이은혜
(3040)



정순자
(유니게, 보문2)



정평우
(2남, 안암3)



주다애
(3040)

[2025년 상반기]

새해맞이특별새벽기도회 1월 2일(목)~4일(토)

신년주일(성찬식) · 향존직은퇴예식 · 신입제직임명(오후) 1월 5일(주일)

여전도회헌신예배 1월 19일(주일)

초등 2부 겨울성경학교 1월 17일(금)~18일(토)

고등부 겨울수련회 1월 24일(금)~26일(주일)

제직수련회 · 장로헌신예배 2월 2일(주일)

청년부 해외선교

2월 3일(월)~8일(토) 일본 히메지 비전교회(이상열선교사)

중등부 겨울수련회 2월 7일(금)~9일(주일)

인도네시아단기선교팀 발대식(금요기도회) 2월 7일(금)

초등1부 겨울성경학교 2월 8일(토)~9일(주일)

소그룹 큐티세미나 1~2 2월 19일(수), 26일(수)

새학기 자녀축복기도회 2월 22일(토)

우신소석장학금 전달식 3월 2일(주일)

3.1절 기념예배 · 재의 수요일 3월 5일(수)

선교주일 · 선교부헌신예배(오후)

3월 9일(주일) 한국성서학연구소와 함께 드리는 예배

배정훈목사(한국성서학연구소 소장, 장신대 구약학 교수)

사순절 40일 사복음서 통독 3월 5일(수)~4월 19일(토) 40일간

교사리바이벌 3월 23일(주일)

영암학당 불학기 #1

3월 9일(주일) 8주간 “복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박재혁 목사

3월 12일(수) 4주간 “인물로 본 한국교회의 역사” 송훈 전도사
4월 9일(수) 4주간 “레위기: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김영한 전도사

세례입교식 · 권사헌신예배(오후) 4월 6일(주일)

선교세미나(소그룹리더모임)

4월 12일(토), 원인규선교사(GP선교회 대표, 필리핀 선교사)

종려주일(성찬식) 4월 13일(주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월 14일(월)~18일(금)

성금요일예배 4월 18일(금)

부활주일 4월 20일(주일)

목사안수예식 4월 29일(화) 장석교회, 김영한 목사 최정아 목사

어린이주일(유아세례식) 5월 4일(주일)

아버이주일 · 1~6남선교회헌신예배 5월 11일(주일)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5월 11일(주일)~19일(월)

영암학당 불학기 #2

5월 18일(주일) 8주간 “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 김기동목사

5월 21일(수) 8주간 “이루실 이야기” 최석빈목사

교육부 해피파티 · 장학헌금주일 5월 25일(주일)

자립대상교회 방문 5월 27일(화) 전복노회 인후초대교회 소담교회

환경주일 · 안수집사헌신예배 · 인도네시아선교보고(오후) 6월 1일(주일)

성령강림주일 6월 8일(주일)

6. 25 기념주일 6월 22일(주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김미경 토크콘서트 6월 27일(금)



136-073 서울 성북구 안암로 7길 66 영암교회

TEL. 924-6798 FAX. 927-9009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66, Anam-ro 7-gil, Seongbuk-gu, Seoul, KOREA

<http://www.youngahm.kr>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

